

최고 수준의 포장 전 과정 자동화 시스템 공급 품질 경쟁력 바탕으로 차별화 전략 성공



이 준 제

(주)제팩 대표이사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계에서 중소기업들이 시시각각 자구책을 마련하며 현실에 대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포장산업계에도 예외는 아닐 터. 그러나 (주)제팩(대표이사 이준제)이 기술이라면 가능하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하고 있는 (주)제팩은 국내 유일의 제조, 엔지니어링, 컨설팅을 아우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중소기업에 바람직한 공급업체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해태상사에서 포장기계 및 포장기자재 수입, 판매를 담당했던 이준제 사장은 지난 1989년 제림패키징을 설립, 외국장비를 수입하며 사업을 개시했다.

창립 후 10여년 이상 덴마크 SOCO 시스템 방식의



▲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팩엑스포에 참가한 (주)제팩

자동화라인을 채택, 국내시장에 보급하는 수입 판매업을 주 업무로 진행시키며 제립패키징을 발전시켜 온 이준제 사장.

1996년 8월, 국내 포장산업계 최고권위의 포장기술사 자격을 획득한 그는 최고의 품질과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업계 일익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IMF의 한파를 맞으면서 수입이 주업무였던 제팩은 환율이 2배 이상 상승하면서 회사 도산의 위기를 맞게 된다.

“당시의 어려움은 이루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포장기

술사라는 명분으로 국가 지원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며 근근히 연명했던 것 같습니다.”

각고의 어려움 속에서도 “외적인 파산만 있었을 뿐, 심적으로는 회사를 지켜나갔다”는 이준제 사장. 그는 “브랜드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과 “세계1등을 해야한다”는 각오로 2001년, 제팩의 도약을 기대, 그동안의 수입판매업에서 벗어나, 박스를 자동으로 제함하는 제함기를 비롯해 테이프를 박스에 자동으로 부착하는 테이핑기, 컨베이어 등 직접 기계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시작, 현재 고품질과

미려한 디자인으로 국내 뿐만이 아닌 세계 각국에서 큰 이목을 끌고 있다.

(주)제팩이 생산하고 있는 주 품목 가운데 하나인 제함기 ‘제하미(Jaehammi)’는 핀과 돔의 조화, 작업자 중심의 조작성, 경사가 주어진 사이드 드라이브의 장착 등으로 외부업체의 제품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핀(Pin)으로 박스를 펼쳐서 제함하는 방식으로 전 자동으로 작동, 조작이 간편하고 정비가 쉬우며 박스의 하부 쉐어링은 테이프, 스테이플, 핫멜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직선 방향으로 설치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세계 최고의 포장기계회사인 덴마크의 소코(SOCO) 시스템 제품을 취급했던 이유로 최고 수준의 제품 개발을 할 수 있었다는 이준제 사장. 그는 “2005년 인터팩에 출품하며 소코와 결별했을 당시에는 정말 가슴 아팠다”며 “카피(copy)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디자인에 대한 투자에 열의를 다한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주)제팩은 디자인



▲ 제팩이 생산하고 있는 업그레이드된 제함기 제하미

로 습기에 강하다. 동일한 크기의 상자에 적용하는 테이핑기는 수동으로 상부 날개를 잡고, 쉽고 빠르게 상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고품질의 테이프 디스펜서는 테이프교체가 용이하고 3개의 롤러가 테이핑의 품질과 작업안정성을 높여준다.

적정포장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주)제팩은 지난 해 무동력 테이프 접음장치인 'Pullip'을 개발, 특허를 획

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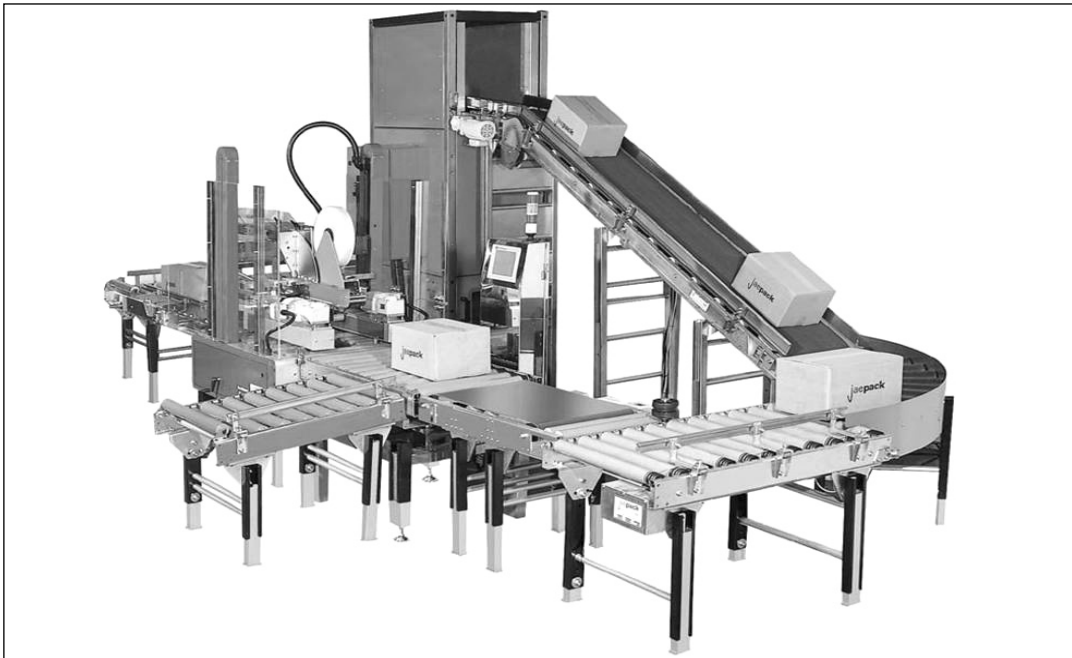
'Pullip'은 무동력으로 테이프로 상자를 밀봉할 때 테이프의 끝 부위에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탭을 성형해 주는 제품으로 작업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봉합기나 제함기 등의 기계에 쉽게 장착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담배인삼공사 전 공장에 적용이 되고 있는 등 고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준재 사장이 밝히는 (주)제팩의 효자상품은 쇼크워치(Shockwatch).

물류과정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품의 각종 파손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Shockwatch를 이 사장이 도입한 것은 15.6년 전, 반응이 없던 이 제품은 6~7년전부터 전자제품, 반도체 장비 등에 적용되면서 제팩의 성장에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80도 이상의 경사로 누였을 때 중앙의 Steel disk가 이탈



▲ 컨베이어시스템

JAE PACK

되면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Tiltwatch는 포장물 외부에 부착하여 취급 부주의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ShockLog는 제품의 유통 중에 발생하는 충격과 진동을 모니터링하는 등 다양한 제품군이 포장 유통 중의 손실을 방지하는데 탁월하게 작용하고 있다. 제조, 엔지니어링, 컨설팅 3분야를 섭렵하고 있는 (주)제팩 이준제 사장은 그동안 독일의 인터팩, 미국 시카고 팩, 일본 도쿄팩과 제팩팩

에 지속적으로 출품, 해외 시장에서 제팩 제품의 우월성을 입증해 왔으며 특히 시카고 팩을 정점으로 해외시장에 제팩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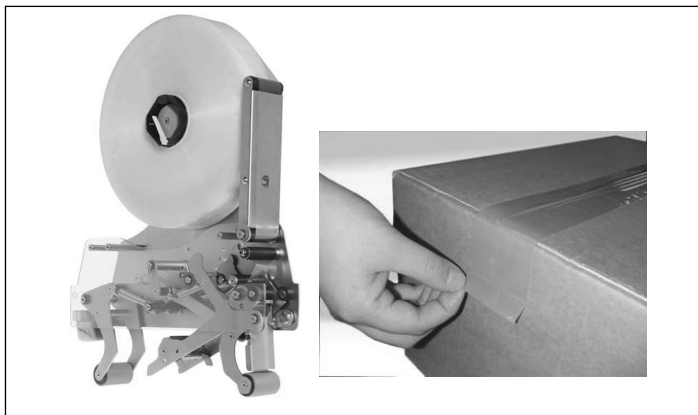
단순히 주문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좋은 서비스와 좋은 디자인을 제공하며, 한편으로는 엔지니어링을 통한 효율적인 컨설팅까지 마련해주는 것이 제팩의 강점이라고 자신있게 밝히는 이 사장. 그는 올해 60억 매출달성

이라는 목표 아래 R&D를 강화하고 국내 내수시장 활로를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지난 달 (사)한국포장협회의 신입회원으로 가입한 (주)제팩. 이준제 사장은 포장진흥법 부활 등 '잃어버린 포장'을 찾기 위한 구심점의 역할을 포장협회가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포장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포장인의 바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IMF 당시의 어려움이 아픔을 주긴 했지만, 인생의 전기도 마련해 준 것 같다는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 이준제 사장. 그는 "리더가 지향하는 목표는 회사를 그 분야의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드는 데 있다"면서 "좋은 기계는 좋은 환경에서 나온다"는 마인드 아래 오늘도 제팩의 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 ☞

박초혜 기자



▲ 무동력 테이프 접음장치 'Pullip'